

##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호아빈건설



### 호아빈건설, 케냐서 7200만달러 규모 주택사업 수주...연초 해외사업 '훈풍'

베트남 건설대기업 호아빈건설(Hoa Binh Construction, 증권코드 HBC)이 연초 7,2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실적호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호아빈건설은 지난 19일 “아프리카 케냐에서 5개 사회주택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케냐 정부가 발주한 이번 사업은 경찰과 군인, 케냐기술대 학생들의 주택마련을 목표로 한 것으로 호아빈건설은 전체 3400호 규모 주택과 함께 인프라 건설의 주계약업체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아빈건설은 “케냐 정부가 실시한 계약업체 신뢰도 및 역량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추가로 9,160만 달러 규모의 2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입찰에 공식 초청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호아빈건설이 이들 2개 사업까지 따낼 경우 케냐 사회주택사업 수주 규모는 1억 6,360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레 비엣 하이 호아빈건설 회장은 “아프리카는 향후 수십 년간 전대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유망한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고급부문 개발사업 진행에 앞서 추가적인 사회주택사업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해외사업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호아빈건설 지도부는 아프리카 시장 첫 번째 목표로 케냐를 낙점하고 현장 시찰을 다녀온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호아빈건설이 목표로 했던 첫 번째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함에 따라 추후 해외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호아빈건설은 올해부터 미국과 바누아투, 호주, 아프리카 등 해외사업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서 2028년까지 누적 수주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 HOA BINH

호아빈건설(Hoa Binh Construction)은 1987년 설립되어 토목건축,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주로 하는 베트남 건설 대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사이공센터, 땀선넛 공항, JW 메리어트 푸꾸옥, 르 메르디앙 호텔 등 베트남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전국 63개의 성 및 도시 중에서 49개의 지역을 포함해 캄보디아·말레이시아·미얀마·쿠웨이트·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시장을 확장해 케냐에서 주택사업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호아빈 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호아빈건설 시행사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제품을 전량 채택한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호아빈건설에 280억원을 투자하여 호아빈건설 주식 2,500만 주를 취득했으며, 2023년 상반기 기준 10.69%의 지분으로 호아빈건설의 2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호아빈건설이 지난 몇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적자가 누적된 데다 회장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는 힘든 상황에서, 작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힘을 보태 양사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매출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7조 5천억 동을 기록하였으며 7,780억 동 of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2024년에는 매출 10조 8,000억 동, 세후이익 4,330억 동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케냐 수주를 알리고 난 후인 20일에는 전일 대비 5% 상승한 주당 9,030동으로 약 530만 주에 달하는 주식이 거래되었다. 이번 케냐 수주를 발판 삼아 시장 확장에 따른 호아빈건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출처: [호아빈건설\(링크\)](#), [The Saigon Times\(링크\)](#), [더구루\(링크\)](#)

## 주요기사

### 베트남, '삼성·엔비디아'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전 가세...보조금·세제혜택 등

베트남이 자국 반도체사업 발전을 위해 특전을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니케이아시아는 후인 탄 닷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베트남이 세제 혜택을 비롯한 특전을 약속하며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닷 장관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 발전에 관한 국가계획에는 FPT와 같은 현지 민간 기업과의 국가 간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보조금 지급이 포함돼있다. 닷 장관은 “베트남은 반도체 부문 선도국가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절차를 완화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니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수십 개의 반도체 부문 기업을 유치한 상태이며, 재생에너지원이 녹색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이 추가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 베트남 정부, 증권시장 발전 목표

응웬득찌 재무부 차관이 지난 19일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에서 열린 음력 새해 첫 거래 시작을 기념하며, 시장이 직면한 장애물을 넘어선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거래, 결제, 예금 및 통관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 기관이 위반 사항을 즉시 감시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을 당부하며, 규제 당국, 증권 거래소, 시장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베트남이 조만간 프런티어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베트남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6조 동에 육박했으며 VN지수는 1,129.93 포인트로 마감했다. 전년 대비 12% 상승한 수치에 해당한다. HoSE 회장 권한 대행인 응웬티비엣하는 한국거래소의 새 거래 시스템인 KRX의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어 곧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통한 증권시장 발전에 기대를 표했다. 출처: [Vietnamnews\(링크\)](#)

## 금융

### 베트남 증시, 2개월 만에 시가총액 275억 달러 급증하며 강한 상승세 지속

베트남 주식 시장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30포인트 이상, 약 12% 상승했다.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의 시가총액도 약 550조 동(230억 달러)이 증가하여 거의 5조 동에 달했다. 베트남 주식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지난 2개월 동안 끊임없는 상승세로 약 660조 동(275억 달러)이 증가했다. 상장 기업들의 긍정적인 사업 성과가 상승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VN Direct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1,128개 기업(시가총액의 96%)의 예상 순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기업들의 사업 활동 개선과 2022년 4분기의 낮은 기저 효과에 따른 성장으로 평가됐다. 한편, 은행 부문이 주도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2023년 4분기 은행 부문의 순이익은 신용 성장 가속화, 비이자 수익(수수료, 외환 활동) 호조, 충당금 비용 5% 감소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22.5% 증가했다. 부동산 부문은 2023년 4분기 전년동기간 대비 19.6% 감소했으며, 2023년 3분기에 비해서는 24%감소했다. 하지만 감소세의 상당 부분이 빈흠(VHM)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은 올해 주식 시장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Vietnamnews\(링크\)](#)

## 타이빈성

출처: [사진\(링크\)](#)

Region 3	Thai Binh 시
Region 4	그 외

2024 년	최저임금(월급) (단위: VND)		
Region 1	4,680,000	Region 3	3,640,000
Region 2	4,160,000	Region 4	3,250,000

## Hai Long 공단

면적: 297ha

입지: 타이빈 시내 30km / Diem Dien 항구 10km

주요 산업: 첨단산업, 기계제조산업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80 USD/m<sup>2</sup> (관리비 0.4 USD/m<sup>2</sup>)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1 USD/ kWh

일반 시간대) 0.06 USD/kWh

유휴 시간대) 0.04 USD/ kWh

물 사용료: 0.5 USD/m<sup>3</sup>폐수 처리: A급-0.12 USD/m<sup>3</sup>, B급-0.45 USD/m<sup>3</sup>출처: [Investvietnam\(링크\)](#)

## 명 칭 : Thái Bình

GRDP : 7.37% (2023년 성장률)

타이빈성은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에 이웃하여 수도 하노이와 북부 경제도시 하이퐁에 인접한 해안 지역이다. 농업 중심 경제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산업 발전 속도는 더뎠지만 2018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타이빈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신흥 산업 도시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현재 타이빈성은 산업 발전을 위한 토지 자금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이빈 경제 구역의 4개 산업 단지과 49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10개의 산업 구역이 있으며 총 면적은 거의 3,000헥타르에 달한다. 2023년 말 기준 타이빈성의 FDI 프로젝트 총 등록 자본금은 30억 달러를 넘었으며, 그중 한국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30개 이상으로 그 규모는 2억 5600만 달러에 이른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하이트진로가 약 1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립 투자 프로젝트를 허가받기도 하였다. 타이빈성은 특히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 한국투자진흥실무그룹(타이빈 코리아데스크)과 타이빈성 투자진흥개발지원센터를 통해 투자 절차 대행과 투자 비용 100% 지원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타이빈성\(링크\)](#), [VNexpress\(링크\)](#), [아주경제\(링크\)](#)

## Song Tra 공단

면적: 177ha

입지: 타이빈 시내 3km / 하이퐁 항구 70km

주요 산업: 전자조립 및 냉동, 독성이 적은 산업 등

전기: 110/35/22 KV

임대료: 60 USD/m<sup>2</sup> (관리비 USD/m<sup>2</sup>)

전기료: 피크 시간대) EVN 규정에 따름

일반 시간대) EVN 규정에 따름

유휴 시간대) EVN 규정에 따름

물 사용료: 업데이트 중

폐수 처리: 업데이트 중

출처: [Kland\(링크\)](#), [Investvietnam\(링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 베트남 항공엔진·부품 공장에 6000만 달러 추가 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베트남 하노이 외곽 호아락하이테크파크(HHTP)에 있는 항공엔진·부품 생산 공장에 6,000만 달러(약 800억 원)를 추가 투자한다. 기존 2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이번 투자 규모를 확대해 생산량을 늘린다. 남형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법인장은 켄 시 타인 하노이시 인민 위원장과 면담에서 “2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했으며, 향후 6,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장 증설로 생산량이 40%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근로자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한화에어로엔진의 발전 성과를 치하한다”며 “올해 신규 주문과 성공적이고 안전한 생산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는 2018년 베트남에 CCTV공장과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을 지었다. 베트남 공장은 한화에어로의 첫 번째 해외 엔진 공장으로 현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항공기 엔진과 산업용 가스 연소 터빈용 부품 등 가격 경쟁력이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한다. 출처: [더구루\(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우/[bhsjun@jplawvn.com](mailto:bhsjun@jplawvn.com) /070-7011-736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mailto: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진출 연대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는 1977년 삼성정밀공업으로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대표 방산기업이자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이다. 고도의 정밀기계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첨단무기와 미래기술을 연구하며 우주선, 항공기 부품용 엔진 등의 개발·생산·수출을 한다. 구체적으로 한화에어로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발사될 총 4회의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및 항공 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40년 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함정용 엔진 및 부품의 개발/생산/정비에 특화된 첨단 항공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 롤스로이스를 포함한 세계적 항공기 엔진 메이커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엔진 핵심 모듈 및 부품을 공급하며 한국-미국-베트남의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2018년 하노이 인근에 10만m<sup>2</sup> 규모의 항공 엔진 부품 공장을 지으며 활약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공장을 통해 원가경쟁력 및 생산능력 향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해 베트남 공장은 1억 4,000만 달러(약 1,879억 원)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한화에어로는 이번 추가 투자로 베트남 공장의 매출을 2025년 1조 원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톱 항공방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출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링크\)](#),  
[글로벌이코노믹\(링크\)](#), [비즈니스포스트\(링크\)](#)